



“영원한 호랑이로 남고 싶다”

■ FA 포기 KIA 이종범

“단 한 번의 고민 없이 타이거즈를 선택했다”

1일 마감된 프로야구 2010년 자유계약선수(FA) 마감 KIA 타이거즈 이종범은 신청서를 내지 않았다.

불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몸을 사리지 않는 투혼으로 팀의 'V10'에 앞장섰던 이종범은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 자신의 야구 열정을 피웠던 곳,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남은 야구 인생을 펼쳐고 명예롭게 은퇴를 하고 싶다는 것이다.

프로에 입단한 1993년 팀의 한국시리즈 우승을 주도하며 그라운드를 호령했던 '야구천재' 이종범은 지난 시즌이 끝난 후 은퇴

후배들과 다시 한번 우승 도전...구단도 1년 계약 추진

4일 MBC '무릎팍도사' 출연...17년 야구인생 풀어놔

논란에 휩싸이며 선수 생활의 중대 위기를 맞았었다. 그러나 이종범의 의지는 확고했다.

자신의 야구 열정과 재능이 후배들 못지않다고 판단한 이종범은 플레잉코치 제안을 거절하고 선수 이종범의 자리를 지켰다.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전지훈련지에서 누구보다 굵은 땀방울을 흘렸던 노력의 대가는 팀의 10번째 우승으로 돌아왔다.

나지완의 굿바이 홈런으로 막이 내린 한국시리즈에서 이종범은 주장 김상훈과 함께

선수단 대표로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후배들의 행거를 받는 감격의 순간도 누렸다. 조범현 감독은 최고참 이종범의 희생이 팀을 변화시켰다고 노장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종범은 “어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게 고참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며 “후배들이 잘해줬고,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내 역할이 더욱 빛난 것 같다”고 말했다. 타이거즈맨으로 자신을 믿고 따라준 후배들과 다시 한번 우승에 도전하기 위해 FA는 포기했다.

이종범은 “FA를 두고 고민 하지 않았다.

타이거즈 유니폼을 입고 다시 한번 후배들과 우승에 도전해보고 싶다”며 “내년 시즌 주전자리를 놓고 후배들과 경쟁하기 위해 올 겨울 더욱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고 밝혔다.

팀도 이종범의 의사를 존중해 1년 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 시즌 선수단의 구심점이 되어준 '영원한 타이거즈맨'으로 이종범을 대우한다는 방침이다.

12년만에 우승의 기쁨을 누렸던 이종범은 감기에 심하게 걸려 1일 남해에 꾸러진 마무리 캠프에 합류하지 못했다. 광주에서 몸을 추스리고 있는 이종범은 4일 MBC 인기 프로그램인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자신의 파란만장했던 17년간의 야구 인생을 풀어놓을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관계자들이 2일 우승 인사차 광주일보를 찾아 16층 사정실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유재철 광주일보사장, 조범현 감독, 김조호 단장, 김여울 기자, 조경완 편집국장, '2009 MVP' 김상현 선수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김조호 단장·조범현 감독·김상현 선수 광주일보 방문

“9일 무등경기장에서 만남시다”

'V10' 자축 성대한 팬 사은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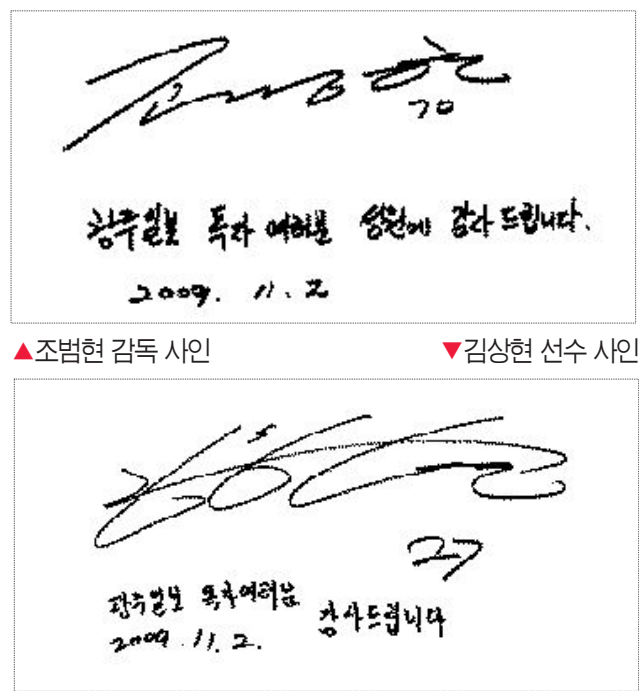
'V10'의 위업을 이룬 KIA 타이거즈가 팬 사은행사를 개최한다. KIA 김조호 단장과 조범현 감독, 2009시즌 최우수선수(MVP) 김상현이 2일 우승인사차 광주일보를 찾았다.

김조호 단장은 “팬들의 성원이 있어 정규리그 우승과 한국시리즈 제패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9일 무등경기장 야구장에서 팬들과 선수단이 함께 하는 사은행사를 마련해 팬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팬들의 관심을 끌었던 카피레이드는 선수단 일정상 행사 시기가 늦춰지면서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구장 신축에 관련한 KIA의 입장도 밝혔다.

김 단장은 “좋은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신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면 조심스럽게 신축 형태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사용자 입장에서 현재보다 부담이 덜지는 방식으로 구장 건립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조범현 감독 사인

▼김상현 선수 사인



한국 골프 배상문 시대

2년연속 상금왕...KPGA 올 시즌 막내러

왕에 올랐다. 특히 배상문은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이시카와 료(일본)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출전한 한국오픈에서 당당히 경쟁하며 우승 상금 3억원을 거머쥐어 상금왕을 일찌감치 확정지었고 세계무대에 나가서도 경쟁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냈다. 배상문은 또 발렌타인 대상과 최지타수왕, 공동 다승왕도 차지하며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이와 함께 김대현(21·하이트)은 300야드가 넘는 비거리를 앞세워 지난 9월 한중투어 인비테이셔널 2차 대회에서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며 새별로 떠올랐다. 비록 중요한 고비를 넘지 못해 다잡았던 우승을 몇차례 날려버리기도 했지만 김대현의 급부상은 올 시즌 대회마다 승부를 박진감 넘치게 만들었다.

/연합뉴스

박찬호 빛바랜 호투

WS 4차전 10닝 무실점 팀은 양키스에 4대7 패

‘코리아특급’ 박찬호(36·필라델피아 필리스)가 월드시리즈 두 번째 등판에서 10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박찬호는 2일(한국시간) 미국 필라델피아 시티즌스뱅크파크에서 열린 뉴욕 양키스와 월드시리즈(7전4선승제) 4차전에서 2-4로 뒤진 7회초 마운드에 올라 삼진 하나를 곁들이면서 10닝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하지만 필라델피아는 9회초 믿었던 마무리 브래드 린지가 무너지며 4-7로 3연패를 당했다.

감기에 걸린 탓에 3차전에 등판하지 못한 박찬호는 7회말 선발투수 조 블랜튼에 이어 마운드에 올라 첫 타자인 투수 C.C 사바시아를 유익수 플라이로 잡아냈다.

이어 데릭 지터를 볼넷으로 내보냈으나 조니 데이먼을 맞아 볼카운트 2-0에서 시속 130km짜리 체인업업을 던져 헛스윙 삼진으로 잡아냈다. 강타자 마크 테세이라를 1루수 팻볼로 속아내며 7회를 마쳤다.

최고 구속 148km를 찍은 박찬호는 8회초 라인인 매드슨으로 교체됐다. 양팀은 1회부터 점수를 주고받는 접전을 펼쳤다. 1회 초 양키스는 지터와 데이먼의 연속 안타로 만든 무사 2, 3루에서 테세이라의 내야 땅볼과 호르헤 포사다의 희생 플레이를 묶어 2점을 먼저 뽑았다.

그러자 필리스에서는 1차전에서 사바시아를 상대로 홈런 2개를 친 체이스 어틀리가 나섰다. 1회말 1사 2루에서 2루타를 때려 1점을 만회했다. 필리스는 또 4회 공격에서 페드로 퀴리스의 좌전 적시타를 앞세워 2-2 동점을 만들었다.

양키스 타선은 5회에 다시 터졌다. 1사 1, 2루에서 지터와 데이먼의 연속 안타를 쳐 4-2로 달아났다.

2009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경기전적

팀	경기	승	패
뉴욕 양키스 (3승 1패)	7전 4선승제	1 : 6 (1차전)	3 : 1 (2차전)
필라델피아 필리스 (1승 3패)	8 : 5 (3차전)	7 : 4 (4차전)	

“박찬호(필라델피아) 7회초 무사 1, 3루
 2점 타자 상대 안타 1, 삼진 1, 2루타 1
 “박찬호(필라델피아) 7회초 동판
 3명 타자 상대 삼진 1, 볼넷 1, 땅볼 아웃 1, 플라이 아웃 1
 경기일정 11월3일(화요일) 5월(6차전)
 한국시간 기준 6일(7차전)

하지만 필라델피아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1차전에서 사바시아를 상대로 솔로홈런 두 방을 터뜨렸던 어틀리는 7회말 또 사바시아를 상대로 우월 솔로홈런을 뽑아 3-4로 따라붙었다. 8회말에는 퀴리스가 좌측 펜스를 넘기는 솔로 홈런을 뽑아내 4-4 동점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마무리 린지가 무너지고 말았다.

양키스는 9회초 2사 뒤 데이먼이 좌전 안타에 이은 도루로 3루까지 갔고 테세이라는 볼넷을 고른 뒤 간판타자 알렉스 로드리게스가 적시 2루타를 날려 5-4로 앞섰다. 계속된 2사 2,3루에서 포사다가 좌중간에 떨어지는 2타점 적시타를 터뜨려 7-4로 달아나며 승부를 갈랐다.

/연합뉴스



앤서니 김 아쉽다

볼보매지플레이 결승 4홀차 무릎

앤서니 김(24·나이아골프)이 유럽프로골프투어 볼보 월드 매지플레이 챔피언십(총상금 325만유로)에서 2위를 차지했다.

앤서니 김은 2일(한국시간) 스페인 카사레스의 핀카 코르테스 골프장(파72·7천380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6홀 결승에서 로스 피셔(잉글랜드)에게 4홀 차로 졌다. 전반 18홀에서 1홀 차로 뒤진 앤서니 김은 오후 경기에서 4.5번 홀을 연달아 내리 3홀 차로 벌어졌다.

이후 14번 홀에서 피셔가 버디를 잡아 4홀 차로 벌어진 앤서니 김은 남은 홀을 다 때려야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었지만 15번 홀을 비겨 그대로 4홀 차로 무릎을 꿇었다. 우승을 차지한 피셔가 우승 상금 75만 유로를 가져갔고 앤서니 김은 45만 유로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고교생 골퍼 한창원

내년 마스터스 출전

골프 국가대표 한창원(18·대전체고)이 아시아 아마추어챔피언십에서 우승해 2010년 마스터스 출전권을 따냈다.

한창원은 1일 중국 선전의 미션힐스 골프장(파72·7천149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2연타와 70타를 쳐 최종합계 12연타와 276타로 우승했다.

2위를 차지한 전제환(19·미국이원 예리전)을 5타 차로 제친 한창원은 2010년 마스터스 본선과 브리티시오픈 최종 예선에 직행할 수 있다. 이 대회는 아시아지역의 골퍼 발전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골프연맹(APGC)과 영국왕립골프협회(R&A)가 파트너십을 맺고 올해 처음 열렸다.

3라운드까지 2위에 2타 앞서 있다가 2번 홀(파5)에서 이글을 잡아내며 승기를 잡은 한창원은 “전반 9홀이 끝났을 때 5~6타 차로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마스터스에 나가기 꽤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창원은 9월 경기도 성남 남서울 골프장에서 열린 제24회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팀선수권 대회 개인전과 단체전을 석권했다.

준우승을 차지한 전제환은 2006년 중산외고 2학년 때 선수생활을 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노스웨스턴대학에 다니는 선수로 6연타와 282타로 3위에 오른 국가대표 김민휘(17·신성고)와 함께 한국선수 3명이 상위권을 휩쓸었다.

/연합뉴스